

제5회 한중일 30인 회의 주요 내용

- 한중일의 경제, 정치, 학술분야의 지식인이 협력관계나 국제사회와의 연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제5회 「한중일 30인 회의」 (테마: 바뀌는 세계와 한중일의 역할)가 4월, 18-19일, 일본 나라시(奈良市)에서 개최
- 금융위기부터 벗어나고 있는 아시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해 3개국에 요구되는 과제에 대해 논의
 - 한중일 30인 회의는 2006년에 시작하여 매년 개최(금년 5번째)

〈표 1〉 한중일 30인 회의 개최 현황

개최 시기	테마	주요내용	개최 장소
2006	한중일 30인회 창립 총회	·3개국 공동FTA 추진 ·북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3개국 공동 통화 대책	서울
2007	북동아시아의 공동 번영	·3개국 정상회담 추진 ·북동아시아공동체 창립추진 ·외환보유액의 5%를 공동기금으로 조성	도쿄
2008	지속가능한 발전과 북동아시아 지역협력	·3개국 금융, 에너지, 기후 협력 ·한중일FTA 조기 체결 ·환경변화연구센터	북경
2009	글로벌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3개국 지역협력	·지역내 통화기관설립을 위한 사무실 창립 ·북동아시아 그린 성장전략기관 설립 추진	부산

□ 제5회 주요협의 내용

-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과정으로 금융위기 재발방지에 대한 금융 ·

재정분야에서의 협조 강조

- 前재무관인 사카키바라(아오야마학원대학) 교수는 동아시아 역내의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공동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
 - IMF를 모델을 참고, 역내 각국에 융자하는 아시아 판 IMF 창립 제안
 - 지역통합의 진척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중일 공동사무국을 창설
- 중국은 국제통화체제 개혁에 대한 협력과 금융안정을 위한 역내 채권시장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
 - 역내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다른 국가의 통화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 한일FTA에 대해 조석래 전경련회장은 우선 3개국에서 체결한 후 아시아로 확대해 나간다는 2단계 방식의 광역경제권 형성을 제안
-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3개국의 협력촉진 합의**
 - 고미야마 미쓰비시 종합연구소 이사장은 환경문제는 부처가 중심이 돼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3개국 정상을 중심으로 정책 협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김명자 前환경장관은 3개국에서 온난화가스 배출량의 산정이나 배출실적의 상호인정 등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
 - 중국 베이징기차집단회장은 전기자동차분야에서 중국의 큰 시장과 일한이 높은 환경기술을 융합하면 세계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

- 문화·교육에서는 경제연계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교육·문화 등의 상호이해가 필요하다고 인식이 일치. 특히 한자문화를 공유하는 3개국의 교류촉진에 대해서 논의
- 3개국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500개를 선택하여 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면 보다 활발한 교류에 연결되는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
- 3개국의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국의 역사적 유적 방문을 제도화하거나 청소년을 악질정보로부터 지키기 위한 협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성과

- 환경대책과 경제성장을 양립시키는 전략으로 3개국 정부를 연계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구상이 제안되어 앞으로의 협력관계 강화를 재확인했음
- 아시아지역의 성장동력으로 환경관련 비즈니스가 고용창출에 연결된다고 그 중요성을 지적
- 향후 각국별로 대통령이나 수상직속의 조직을 설치하고 3개국간 정책협조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표명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3분야의 내용은 제안된 내용을 정리하여 3개국의 정부에 제출될 예정

* 첨부 : 주요 제안 내용

이상

□ 주요 제안 내용

【금융·재정·경제총합】

- 아시아경제통합을 위한 3국 공동사무국 설립
- 한중일FTA 조기체결을 위한 연구를 가속
- 미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기구 창설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확대하고, 동아시아 외화보유액의 일부를 공동운용
- 아시아 역내 인프라 정비 기금 창설
- 환경, 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3개국 공통 공업규격 제정
- 지역에서 자원을 공동 비축, 융통하는 협력체제 구축
- 아시아채권시장의 구체적인 실효목표를 설정

【환경·에너지】

- 환경대책과 경제성장을 양립시키는 전략으로 정부 간 정책협조
- 스마트 그리드 기술개발에서 3개국이 제휴
-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3개국이 기술협력, 이전을 촉진
- 3개국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적 그린에너지 개발안건의 지원기금을 창설
- 환경, 고령화 등 제반문제 해결을 목표로 '플래티넘 사회'구상 공동네트워크 구축
- 차세대 원자로 관련, 전문가의 교육, 육성에서 공동프로그램 마련
- 에너지절약, 내수와 관광의 활성화 등을 목표로 3개국에서 서머타임을 공동 도입
-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축전지의 안전성평가와 충전프라그, 충전방법의 규격을 표준화
- 온난화가스배출량의 산정, 검증 등 '한중일 탄소시장협의회'를 설립
- 황사대책 협력을 촉진
- 수자원의 고갈 대책 국제협력

【문화·교육·민간교류】

- 3개국에서 수강을 의무화하는 공통 단위제의 '동아시아 경영대학원' 설립
- 민족감정을 상하게 하는 표현, 오보 등을 시정하기 위해 3개국이 공동운영하는 사이트 개설
- 3개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필수한자 500자를 선정해서 교육
- 동양의 정신강좌 등을 공동으로 주최
- 3개국이 순회하면서 문화박람회를 개최